

제2강 유물론적 욕망과 기계주의

1. 지난 주 복습과 부연설명

- 오이디푸스와 가족주의
- 욕망과 무의식, 파시즘의 문제

2. 기관 없는 신체

하나의 충만한 대지, 충만한 신체인 사회체(socius)는 사회의 모든 생산이 등록되는 표면이며, 이로부터 사회의 모든 생산은 이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표면 위로 생산의 각 영역이 분배되고 위계적으로 조직되면서 사회적 신체는 유기적 일체로 재구성되며, 욕망의 생산·분배·소비의 특정한 순환회로를 구축한다. 사회적 신체는 특수화된 욕망하는 생산을 순환시키는 하나의 기계인 셈이다. “충만한 신체로서의 사회체는 생산 전체가 자신을 등록하는 하나의 표면을 형성하며, 생산 전체는 그 등록표면에서 발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는 생산과정을 등록하면서 자기 고유의 망상을 구성한다”. 원시영토기계, 전제군주기계, 자본주의기계는 그렇게 특정화된 욕망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양상들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 낸다.

코드의 분리적/이접적 종합은 기계적 생산의 한 양태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나중에 밝혀지지만 연결적/접속적 종합과 분리적/이접적 종합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생산의 주요 결절점은 오히려 후자에 찍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열 속에서 어떤 이웃관계를 갖고 기계들의 생산이 시작되는가에 있다. 물론 여기서도 생산과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의 일이다.

3. 주체와 향유

분리적/이접적 종합에 의해 등록은 생산 위로 덧씌워지지만, 등록 또한 그런 방식으로 생산된다. 소비는 그 다음의 일인데, 주시할 점은 이 과정 속에서 등록의 표면 위로, 그리고 그 효과로서 주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각 나뭇의 여분들 속에서 등록표면의 분리/이접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리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 주체는 욕망의 생산이 지나가고 남겨진 자리에서 생기며, 에너지가 소비되고 남은 잔여물로서 등장한다(욕망 그래프 참조). 그것은 욕망의 생산들이 교차되고 소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소비의 결합적/통접적 종합(conjunctive synthesis)의 부산물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 각각의 결과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한 정체성/동일성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다. 독신 기계로서의 주체.

주체는 찌꺼기였으나, 다시 하나의 기계로 종합되고, 그것이 생산하는 것은 강도량(intensive quantities)이다. 기관 없는 신체의 강도=0의 상태에서부터 특정화된 벡터를 따라 특정한 계열을 형성하며 자기의 흔적을 그려나가는 것. 나중에 들뢰즈가 스타일이라 부른 것은 바로 그러한 강도적 벡터의 일정한 계열, 특정 강도의 일관된 지속 상태를 말한다.

기관 없는 신체로 구심적으로 수렴하며 동시에 원심적으로 팽창하는 힘은 오직 기계들의 작동에 의거할 뿐 주체와는 무관하다. 주체는 생산의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명멸하며 드러나는

특정한 강도의 점[極]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체는 그 계열의 각 상태마다 태어나고, 한순간 그것을 규정하는 그다음 상태에서 항상 다시 태어나며,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모든 상태를 소비한다”.

주체의 항상적 변이는 주체의 정체성/동일성을 보증하지 않고, 다만 기계적 과정의 **익명적** 일부만을 지시한다. 생산은 **비주체적 과정**에 다름 아니고, 흔히 주체화로부터 연원하는 오이디푸스적 구조화वाद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연히 가족 삼각형도 없고, 근본적으로 인격적 지시체를 이루지도 않는다. 니체는 자신을 역사상의 모든 이름들과 동일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망상도 비약도 아닌 **생산의 실재적인 과정**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인물들과 동일시하지 말고, 역사의 이름들을 기관 없는 신체 위의 강도적 지대들과 동일시하라. 그러면 그때마다 주체는 <이게 나다, 따라서 이게 나다!>라고 외친다”. 그래서 니체의 주체는 그 어떤 단일한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그때마다 항상 “그러므로 이것은 나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

※ 종합의 세 차원, 또는 세 가지 생산이란 무엇인가?

- (1) 연결적/접속적 생산(connective production, 連言)
- (2) 분리적/이접적 생산(disjunctive production, 選言)
- (3) 결합적/통접적 생산(conjunctive production, 合言)

- 생산은 결국 에너지의 흐름을 절단하고 맺어주는 기계적 과정이다. 기관없는 신체의 표면에서 일정하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의 정해진 회로를 따라 이 과정은 기계론적 순환을 반복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매끄러운 공간에서 흠패인 공간으로). 모든 것이 생산이면서 동시에 그 생산의 반복적 순환(‘차이없는 반복’)의 고리를 끊는 반생산(antiproduction)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주체의 발생. 주체는 선형적으로 전제되는가? (데카르트적 cogito)

- 정신분석과 근대적 주체의 붕괴: 주체는 하나의 효과로서 생산된다. 하지만 생산의 효과로서 주체는 자신을 생산의 전제로 상상하고, 이 상상을 재생산함으로써 지탱될 수 있다.

- 『안티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독신기계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독존적으로 존립한다고 표상되는 주체의 독자성을 표상하는 장치. 욕망의 잉여-효과이자 결합적/통접적 종합으로서 주체.

- 문제는 슈레버적 독신 기계가 생산하는 강도량이다. 정념적 차원이 아닌, 생성과 이행, 전이하는 힘들의 총량으로서 강도량이 생산된다는 것. 강도=0의 상태. 에너지의 완전한 충전 상태로서 강도=0은 기관없는 신체의 상태를 보여주며, 순수한 물질 자체를 드러낸다. 힘의 잠재화가 현행화와 일치하는 지점, 또는 그 두 상태가 만나는 절대 긴장의 찰나.

- 니체와 역사의 이름들. 자연인=역사인.

4. 유물론적 정신의학

전통적인 정신의학은 재현과 표상의 질서를 다루었다. 체액의 인성론적 자질을 따지거나(담즙질, 점액질...), 히스테리의 신화적 기원(‘자궁’)을 통해 병인을 추출하려 했다. 정신의학자들이 보지 못한 것은 환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증상들이 나타내는 순수한 신체적 징후들, 거기에 나타난 다양한 힘들의 관계들(타협...), 곧 욕망이다. “정신분석의 위대한 발견은 욕망하는 생산, 무의식의 생산들의 발견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라는 욕망의 기호체계를 구축했

을 때, 정신분석은 다시 재현과 표상의 질서로 환원된다. 그것은 힘의 관계, 작동이 아니라 관찰되고 대리되는 힘의 흔적, 궤도에 가깝다. “즉 공장으로서의 무의식이 고대 극장으로 대체되었고, 무의식의 생산 단위들은 재현으로 대체되었고, 생산적 무의식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인 무의식(신화, 비극, 꿈...)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욕망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분석은 그것을 환상이라고 가르친다. 욕망은 인간에게 결여된 것을 보충하는 환상에 의해서만 제어되고 진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최종 인자는 결여, 비실재라고 정의된다. “욕망에 의해 생산되는 한 대상의 현실은 심리적 현실이다. [...] 욕망이 현실적 대상의 결핍이라면, 욕망의 현실 자체는 환상된 대상을 생산하는 〈결핍의 본질〉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욕망은 생산으로 파악되고 있으면서도 환상의 생산으로 파악되는 것이며, 정신분석에 의해 완전히 설명된 것이 된다”. 정말 그런가? 들뢰즈와 가타리는 오히려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현실을 생산하는 원인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욕망의 생산과 사회적 현실의 생산은 별개의 두 차원이 아니다. 생산은 모든 것이며, 동시에 일원적이다. 사회가 욕망을 생산하며, 욕망은 사회를 생산해낸다. 동어반복적이라고? 근본적으로 그렇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욕망과 사회, 자연과 인간은 동일하다. 공통외연적이며, 내재성의 평면에서 상호순환하는 흐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왜 자연, 사회, 인간이라 부르는가? 각각의 기계들을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것, 개체화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며, 그렇게 구성되고 구성하는 것이 욕망하는 기계이다. 즉, 사회든 욕망이든 생산은 언제나 조건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산되는 것은 욕망이며, 오직 욕망만이 모든 것을 생산한다는 명제가 효력을 갖는 것은 생산의 조건성을 염두에 둘 때이다. 문제가 이렇다면, 이제 파시즘의 근본 문제, 스피노자와 라이히가 던졌던 “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싸우기라도 하는 양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울까?”라는 질문이 이해될 수 있다. 독일의 시민들은 나치의 현혹과 압박에 속거나 마지못해 끌려다녔던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특정한 조건 하에서 생산된) 욕망에 의해 히틀러와 나치당을, 제2차 세계 대전과 유대인 대학살을 원했고 방조했다. “아니, 대중들은 속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저들은 파시즘을 욕망했고, 군중 욕망의 이런 도착성을 설명해야만 한다”.

욕망하는 생산이라는 개념은 고체성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의 역학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있다가 없는 어떤 객체로 표상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채우고 빠져나가며 흘러 넘치는 액체성의 이미지로 사유되어야 한다. 리비도 경제. 욕망은 고정된 순환회로를 따라 흘러 다니며, 그 회로의 유전을 통해 대중의 욕망을 좌지우지 한다. 이것은 심리의 사실이 아니라, 실재하는 모든 것, 기술기계로부터 인간기계, 부분기계, 사회기계의 거대기계(mega machine)에 이르기까지 기계주의 일반에 관한 사실이다. 문제는 욕망이 투여되고 회수되는 회로는 언제나 막히고 구멍나며, 흘러넘치도록 고장난다는 점이다. 욕망은 결코 주어진 회로를 안정적으로 유동하지 않는다. “욕망하는 기계들은 작동하면서 끊임없이 고장 나며, 고장 난 채로만 작동한다”.

액상으로 이미지화되는 욕망의 흐름은 단 하나의 유일한 흐름인 동시에 셀 수 없이 다양한 미시적 선들을 이루며 결합하고 분기하는 힘이다. 기관 없는 신체에 특정한 등기의 코드를 도입하며 구성되는 사회체socius/social formation는 그 흐름을 통제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흐름의 합종연횡이 사회체의 형태를 변환시킨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 즉 돈-자본의 형태를 가진 생산의 탈코드화한 흐름과 토지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노동자의 흐름이 만났을 때 구성된 사회 구성체다.

5. 기계들

1. 흐름의 채취와 절단. 일반화된 기계주의. 모든 기계는 기계의 기계이며, 하나의 기계는 그것이 접속되어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흐름의 절단이지만, 그것에 접속되어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흐름의 자체 속은 흐름의 생산. 생산의 생산.

2. 모든 기계는 그 기계 속에 기계화되어 있고, 일종의 코드를 지닌다.

3. 잔여-절단. 기계 곁에 하나의 주체를, 기계에 인접한 주체를 생산하는 절단이다. 주체는 그것을 통과하는 소비 과정을 통해 생산되며, 가상의 안정성을 지닌다.

사회는 기계의 속성을 그대로 보유하며, 사회의 작동 방식은 기계의 작동 방식과 다르지 않다. 기계는 연속적인 물질의 흐름 및 이 흐름의 절단들과 관계하며, 기계 장치를 이루는 코드를 내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 또한 생산의 흐름들, 생산 수단의 흐름들, 생산자와 소비자의 흐름들로 이루어지며, 이 흐름들에 대한 다양한 절단을 행하고, 이 흐름들을 코드화하는 한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그러나 사회를 기계로 정의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적 통일체를 만들거나 기계론적 시스템을 수립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회와 인간들간의 관계를 사물화하는 것도 아니다. 들뢰즈에 의하면 기계는 사회적 배치의 과정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5. 전체와 부분들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이나 부분들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과 평행적으로 구성된다. “결코 그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재통합하지 않는 총합 속에서 기능한다. 여기서 절단들은 생산적이며, 그 자체가 재통합들이기 때문이다”. 전체는 부분들의 통일체이기는 하나 그것들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계적 구성에 의한 통일체를 이룬다. 달리 말해, 기계적 구성이 달라지면, 통일체의 내용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cf.)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조응관계와 역사 유물론.

물론 이러한 전체성의 생산은 기관 없는 신체의 생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 없는 신체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기원, 부동의 원동자, 헤겔적인 보편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의 ‘곁에’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역설적 전체다. “기관 없는 신체는 하나의 전체로서 생산되지만, 다만 자기 장소에서, 생산과정 속에서, 그것이 통일하지도 총체화하지도 않는 부분들 곁에서 생산된다. [...] 전체는 부분들과 공존할 뿐 아니라 부분들에 인접해 있고, 그 자체로 따로 생산되며, 부분들에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라캉의 부분대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받지 않을 수 없다. 라캉적 구도와 들뢰즈-가타리의 구도가 비슷하게 겹쳐지는 지점이 바로 부분대상들에 대한 논의 인바, 욕망하는 기계나 기관 없는 신체를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라캉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낱설이 아닌 것은 이들이 상당히 유사한 사유의 구도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분대상이란 무엇인가?...